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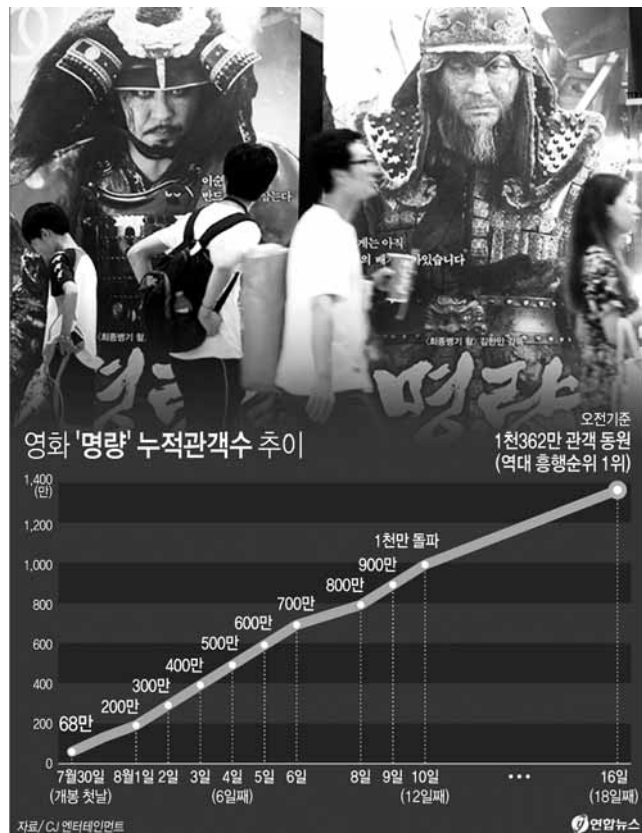


‘명량’이 ‘아바타’를 넘어 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운 17일 CGV 광주 터미널점에는 ‘명량’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봉 19일 째인 이날도 ‘명량’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세를 이어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극장가 ‘명량 대첩’ ... 적수가 없다

관객 1400만명 돌파... 어디까지 갈까

개봉 19일 예매율 1위·점유율 50%
추석 연휴 전까지 대작 없어 고무적
한국 영화 최초 매출 1000억 넘어
출판·여행업계 등도 ‘이순신 열풍’



‘명량’이 개봉 18일만에 ‘아바타’(1362만 명)를 제치고 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17일 오전 현재 관객수는 1423만명에 달한다. 관심은 이제 ‘명량’의 최종 스코어에 쏠리고 있다. 특히 ‘명량’은 단순히 흥행 영화를 넘어 사회 전체에 이순신 열풍을 일으키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이은 기록 어디까지 갈까.
190억원이 투입된 대작 ‘명량’의 기세는 개봉 첫날부터 확인됐다. 7월30일 68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오픈닝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최단 기간 200만 돌파(3일)를 비롯해 300만(4일), 400만(5일), 500만(6일), 600만(7일), 700만(8일), 800만(10일), 900만 돌파(11일), 1000만(12일), 한국영화 신기록(17일) 등을 가장 빠른 속도로 달성했다.

특히 ‘아바타’가 1200만에서 1300만명으로 가는 데 18일이나 걸린 데 반해 ‘명량’은 이를 만에 이를 돌파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량’의 흥행에는 영화 주 소비층인 20~30대와 함께 40~50대의 적극적인 관람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 최대 복합영화관인 CGV에 따르면 ‘명량’의 20~30대 관객 비율이 57.5%를 가장 높았으며 40~50대 관객도 37.5%나 됐다. ‘명량’은 ‘해무’ 등 신작이 개봉한 현재도 예매율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점유율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렇다할 대작들이 보이지 않는 점도 ‘명량’에게 고무적이다.

▲얼마나 벌어들이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명량’의 누적 매출액은 17일 현재 약 1097억원이다. 이 중 부가세와 영화 발전기금 3%를 뺀 매출액은 954

억원. 이를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5대 5로 나눠 각각 477억원씩 가져간다. 여기서 총제작비 190억원과 배급 수수료 10%를 뺀 투자사의 이익은 약 239억원 수준이며 이중 제작사 빅스톤픽처스를 직접 차린 김한민 감독이 96억원의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최민식 등 주연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는 제작사가 지급한다.

현재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작품은 3D로 개봉해 티켓 가격이 높았던 ‘아바타’의 1284억원이다. 한국 영화의 경우 최대 수익을 낸 작품은 ‘도둑들’(1029만명)의 936억원이었다. 역대 한국영화 1위였던 ‘괴물’(1301만명)은 91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전반에 몰아친 열풍
‘명량’의 흥행은 사회 전반에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스테디셀러인 김훈의 ‘칼의 노래’는 개봉 전보다 7배나 판매가 증가했다. 또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5)의 원작인 소설가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민음사 전8권) 등 기존작들과 함께 김호경의 ‘명량’(21세기 북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일상 이상), ‘불패의 리더, 이순신’(하늘재) 등 신작과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전 2권·시루) 등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쏟아지고 있다. 또 ‘명량’의 촬영지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상품도 판매중이며 이순신 장군의 무용담을 재현한 장난감이 인기리에 판매됐다.

명량해전 해설강의도 등장했다. 사회 탐구 영역 강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설민석 씨의 강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명량’의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지자체 문화 마케팅 분주

전남도, 10월 명량대첩 축제 확대...재현 행사 더 웅장하게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 포토존...울돌목 거북배 물살체험
진도, 2100석 ‘승전무대’ 완공...충무공 전첩비 등 유적 홍보

‘명량’의 누적 관객이 한국 영화 최초로 1400만 명을 넘어지면서 이 영화의 배경인 진도·해남과 촬영 장소였던 완도 등지의 관광지가 뜨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전남 지역 곳곳에 관광객이 몰리고, 해당 지자체도 잇따라 영화를 활용한 ‘문화 마케팅’을 내놓고 있다.

해남군은 17일 “이 영화가 개봉한 지난달 30일 이후 1만여명의 관광객이 문내면 우수영관광지를 찾았다”면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영화 개봉하기 전보다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량대첩의 역사적 현장인 우수영관광지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우수영관광지는 명량대첩탑, 충무공유물전시관,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강술래, 충무사, 울돌목, 고뇌하는 이순신상 등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해남군은 우선 군 홈페이지에 ‘명량 역사 현장 둘러보기’ 팝업창을 개설했고 명량역사체험마당, 울돌목 거북배 물살체험, 충무공유물전시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우수영관광지 내 사진찍기 좋은 곳 3개소에 포토존도 설치해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도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의 거센 소용돌이 바다를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승전무대’를 완공했다. 40억원을 들여 2300㎡ 터에 관람석 2100석이 마련된 승전무대에서는 오는 10월 재현되는 명량대첩 해전을 볼 수 있다.

진도에는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진도 백성들과 함께 16일간 준비했던 벽파진, 적을 속이기 위해 부녀자들에게 군복을 입혀 산허리를 돌게 해 강강술래의 기원이 된 관방산성(강강술래터) 등이 보존돼 있다.

해전에 참전해 장렬히 전사한 군인들과 이름 모를 민초들을 묻은 정유재란 순절묘역,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대한 당시의 역사가 적혀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비석인 충무공 전첩비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과 관광지도 많다.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이 촬영된 완도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완도 청해포구 드라마세트장에서 ‘명량’의 주요 명장면인 왜군부대 출정식, 군함장비 선착장 전투신, 전장으로 폐허가 된 저잣거리 등이 촬영됐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중 700여명, 주말 1000여명의 방문객이 세 트장을 찾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명량대첩축제(사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당초 39만명에서 50여만명으로 높였고, 명량대첩 재현 프로그램에 판옥선과 함께 5~7급 선박 100여척을 참가시키는 등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원도·진도·해남=정은주·박현영·박희석 기자

‘명량’ 제작일지

2011년 ‘최종병기 활’ 개봉 때 구상
30m 판옥선 건조 1년...촬영 6개월
CG 등 후반작업 270여명 ‘포박 1년’
‘명량’의 메가폰을 잡은 이는 순천고 출신 김한민 감독이다. 2007년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으로 데뷔한 그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야 영화를 전공하기 시작했다. 동국대 영화영상대학원에 들어가 늦깎이로 영화를 배웠고 공포 영화 ‘핸드폰’(2009)을 거쳐 2011년 500만명을 동원한 ‘최종병기 활’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김 감독이 ‘명량’을 구상한 것은 ‘최종 병기 활’의 개봉 즈음이었다. 구상과 시나리오 작업에 1년, 촬영 6개월, 후반작업 1년까지 모두 3년여의 시간이 걸려 완성된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

관광지 내 사진찍기 좋은 곳 3개소에 포토존도 설치해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도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의 거센 소용돌이 바다를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승전무대’를 완공했다. 40억원을 들여 2300㎡ 터에 관람석 2100석이 마련된 승전무대에서는 오는 10월 재현되는 명량대첩 해전을 볼 수 있다.

진도에는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진도 백성들과 함께 16일간 준비했던 벽파진, 적을 속이기 위해 부녀자들에게 군복을 입혀 산허리를 돌게 해 강강술래의 기원이 된 관방산성(강강술래터) 등이 보존돼 있다.

해전에 참전해 장렬히 전사한 군인들과 이름 모를 민초들을 묻은 정유재란 순절묘역,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대한 당시의 역사가 적혀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비석인 충무공 전첩비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과 관광지도 많다.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이 촬영된 완도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완도 청해포구 드라마세트장에서 ‘명량’의 주요 명장면인 왜군부대 출정식, 군함장비 선착장 전투신, 전장으로 폐허가 된 저잣거리 등이 촬영됐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중 700여명, 주말 1000여명의 방문객이 세 트장을 찾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명량대첩축제(사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당초 39만명에서 50여만명으로 높였고, 명량대첩 재현 프로그램에 판옥선과 함께 5~7급 선박 100여척을 참가시키는 등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원도·진도·해남=정은주·박현영·박희석 기자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6'0"

5'6"

5'0"

6'0"

5'6"

5'0"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